

- 부흥기 주최한 제82회 ○
- 1회 발명교양이 지난 ○
- 12월 8일 발명장려관 ○
- 연구실에서 개회한다 ○
- 1월 둘째 토요일 수 ○
- 1월 19일 30분에 ○
- 되는 발명교양은 이 ○
- 달에도 1백여명이 ○
- 통하여 심황을 이루 ○
- 있다. 이날 발명교양 ○
- 에서는 금도레저 ○



# 텐보트 발명가

## 금도레저 金萬洙 사장

세계 최초로 텐보트를 발명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金萬洙 사장.

그는 맨손으로 서울에 상경하여 발명에 대한 열정과 옳은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10년 간의 연구 끝에 텐보트를 발명, 지금의 금도레저를 설립했다.

현재, 金萬洙 사장은 미국 남아연방, 일본, 호주 등에 수출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91년엔 1인용, 3~4인용, 7~8인용의 3가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金萬洙 사장은 처음 부산에서 사업을 하며 작지만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날렸고 그는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올 수 밖에 없었다.

축산업을 전공한 그로서는 서울에서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진실되게 사람을 상대하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그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스포츠회사의 판매담당 부장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

텐보트를 발명한 것도 바로 이때다. 그는 텐보트의 발명동

기를 이렇게 밝혔다.

『스포츠분야에 근무하며 스포츠용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죠. 그러던 중 등산, 낚시, 해수욕 등을 떠날때마다 서로 다른 용품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깨닫게 되었고, 산과 해수욕장에서는 텐트로, 강이나 바다에서 낚시 등을 할 때는 보트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레저용구를 집약 겸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연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텐보트를 연구하면서 겪은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았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하여 포기하려고도 했었

# 發明教室

## 成功事例 登 發表

- 獨步 사건의 비밀
- 美 國에 이기 國
- 美 國 소사부장의 功
- 「삼천리 강철사」의 功
- 美 國人의 功
- 美 國의 「美 國」
- 美 國에 대한 功
- 의회 토론이 있었다
- 美 國의 功
- 美 國의 功
- (후 記)



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일 때 공기 안의 질소가 팽창, 공기텐트 자체가 터져버리는 결점을 보완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겐 어려움이 닦칠 수록 강해져만 가는 신념이 있었다. 텐보트의 완성과 특허가 나올때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후, 그는 다시 발명에 전념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기압의 팽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기의 개발이었다.

그는 연구를 거듭하여 온도차에 따른 팽창성질을 과학적으로 입증, 분석, 팽창으로 인한 팽크와 수축작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완성시켰다.

금사장이 발명한 이 텐보트는 텐트와 보트를 합성한 단어로써 용도 역시 명칭처럼

텐트와 보트의 역할을 한다.

또한 텐보트 바닥에 가까운 매트리스도 독자성을 갖는 9개의 공기실로 제작되어 어느 한곳이 펑크가 나더라도 나머지만으로 매트리스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며 공기를 넣어 사용하므로 거치른 땅에서도 포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미려하여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텐트와 매트리스 자체가 공기튜브와 같은 것으로 비상시에는 구명보트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텐보트는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발명을 시도했으나, 공기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실패했고 현재는 금사장이 발명한 텐보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작에 성공한 경우다.

『연구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즉시로 전문가

를 찾아가 의논을 해야합니다.』

텐보트 발명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받곤 했다는 금사장은 텐보트와 인연을 맺으면서 공기에 대한 연구를 해온 지 7년 동안 어느새 그 분야에 대해선 지난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기를 다루는 기술 분야에 자문을 의뢰받을 만큼 이미 전문가가 되어있었다.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면 꼭 성공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에 수출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금사장은 곧 공기를 자원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전념하여 공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마네킹을 고안 하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